

■ 사회적 기업 1호 인증 '다솜이 재단'

# “수익 내며 봉사하니 더 큰 보람”

## 간병으로 번 돈 무료간병에 재투자 여성 가장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민간 비영리 단체(NPO)는 역설적으로 '자금'이 생존 조건이다. 재정이 열악하면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다. 과도한 기부에 의존하다 보면 초심을 잃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사회봉사'와 '수익'이라는 일거양득(一舉兩得)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이같은 이점을 잘 살려 사회적 기업 1호로 정부의 공식인증을 받은 단체가 있다. '다솜이 재단'이 바로 그것이다.

다솜이 재단은 저소득층 무료 간병 등 간병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와 영리회사의 중간 형태로 일반회 사처럼 영업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적 기업이다.

광주에서도 '다솜이 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25일 현재 광주에서 활동 중인 간병인 수는 35명.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 가장들로 선발된 이들은 화순 전남대 병원과 광주 한국병원, 삼성병원 등에서 간병서비스를 하고 있다.

당초 '다솜이 재단'은 지난 2004년 기업 등의 지원을 받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노숙자 등 취약계층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19일 차별화된 생존전략을 세운 뒤 실업극복국민재단에서 독립해 새출발을 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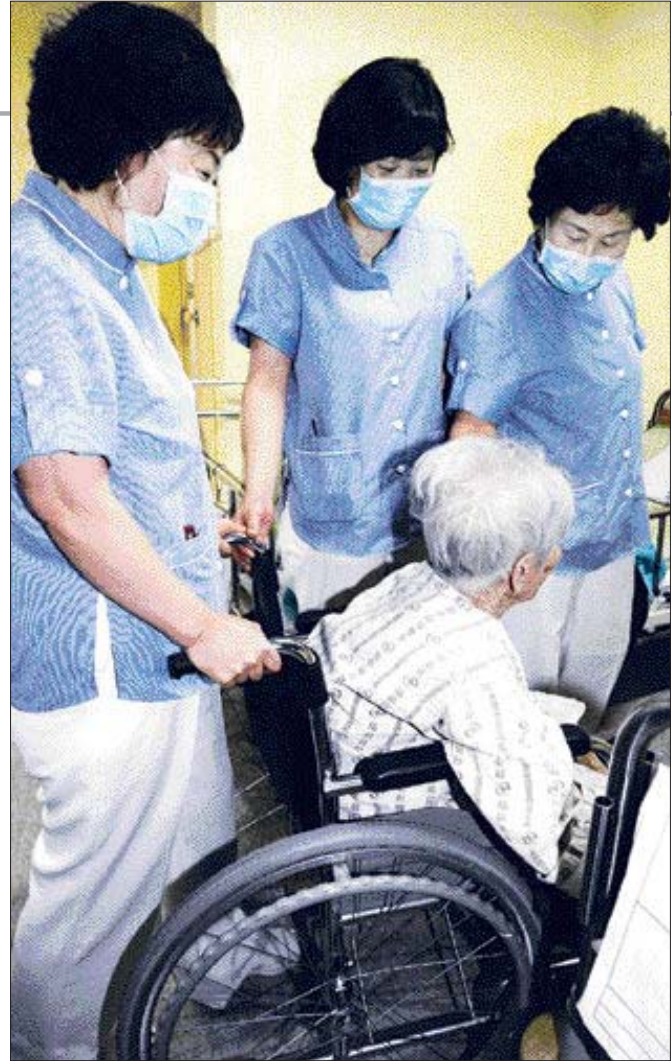
이후 '다솜이 재단'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유료 간병 사업을 벌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 돈을 다시 무료 간병에 재투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유료 간병 시스템을 개발했다. 간병인 1~2명이 6인 병실의 환자 전원을 동시에 돌보는 '공동 간병'이 그것이다.

간병인 이승미(여·48)씨는 "이 사업을 통해 스스로 돈을 벌며 가족의 생계를 이 어갈 수 있다는 자체에 큰 만족을 느낀

다"며 "일자리가 늘어 더 많은 여성 가장들이 이 사업에 차명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려움도 적지 않다. 특히 간병인 관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간병인들은 금세 일을 포기해 실직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잦다. 또 적정 규모의 인력을 활용해 최대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유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간병인을 많이 투입하다 보면, 결국 인건비 때문에 수익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솜이 재단' 광주지역팀 관계자는 "간병인들의 근무 강도를 높여 수익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수익을 늘리겠다"며 "올해 국회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통과돼 기업의 사회적 서비스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광주시 북구 유동 삼성병원, 사회적 기업인 '다솜이 재단'의 간병인들이 노인 환자를 돌보고 있다. /위경림기자 jrwi@



## ‘보이스 피싱’ 잇단 철폐 완도·목포서 인출·판매책 검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통장 판매책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완도경찰청은 25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속칭 '대포 통장'을 사들여 전화금융사기단에 판매해 온 임모(24·서울시 종로구 낙원동)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방을 개설, 접속해 온 심모(32)씨에게 금융기관 통장 10개와 현금카드 10매를 1개당 10만원씩에 구입해 금융사기단에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20여명으로부터 통장 300여 개를 구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경찰도 이날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 전화사기 행각을 벌여온 중국인 주모(31)씨와 박모(29)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8일 검거된 중국인 양모(28)씨 부부와 짜고 지난해 11월 강모(66)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한 뒤 700여만원의 가짜채는 등 2개월 동안 모두 7명으로부터 7천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주씨 등은 이 과정에서 수도권지역 현금인출기에서 대기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현금인출기로 돈을 이체하자마자 입금받은 돈을 출금해 챙기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 뇌사 아들 인공호흡기 떼 아버지 집유 광주지법 “남은 가족 부양 위해 기회준 것”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25일 뇌사상태에 빠진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윤모(52)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데도 피고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들의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살인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20여 년 간 간호해 온 점,

희생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놓인 아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질병을 앓고 있는 둘째 아들을 비롯한 남은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8월8일 불치병을 앓고 있던 아들(27)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사상태에 빠지자, 병원에 입원 중인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전직 교장 살해범 구속

광주북부경찰청은 25일 홀로 사는 60대 전직 교장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김모(62·해남군 산이면)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M아파트에 사는 최모(67)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최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8월께 아내가 누군가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오던 중 우연히 서랍에서 주소가 적힌 최씨의 명함을 보고 내연관계로 오해, 생면 부자의 최씨를 찾아가 이 같은 짓을 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최씨가 10여년 전 김씨의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명함을 건넨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잠잠해진 칼바람**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대체로 맑았다.

광주	구름 조금	-4~4℃
목포	구름 조금	-3~4℃
여수	구름 조금	-2~5℃
완도	구름 조금	-3~4℃
구례	구름 조금	-7~4℃
해남	구름 조금	-5~4℃
장흥	구름 조금	-6~5℃
고흥	구름 조금	-5~5℃
순천	구름 조금	-7~4℃
영광	구름 조금	-6~2℃
진도	구름 조금	-2~4℃
전남	구름 조금	-6~3℃
남원	구름 조금	-7~4℃
홍천도	구름 조금	0~2℃

서해남부  
안바다=북서~북동풍 과고 1.0~1.5m  
면바다=북서~북동풍 과고 1.0~2.0m  
남해서부  
안바다=북서~북동풍 과고 1.0~1.5m  
면바다=북서~북동풍 과고 1.0~2.0m

목포 밀물 < 04:25 썰물 < 09:39  
> 16:53 < 22:08  
여수 밀물 < 11:33 썰물 < 05:12  
> 23:47 < 17:35

▲해돋이 07:36 ▲해질 17:54 ▲달출 21:50 ▲달짐 09:3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2/1(금)
날씨						
최저/최고	-4/5	-2/6	0/6	-2/5	-3/4	-2/6

## 최저 영하 7도 주말·휴일 춥다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6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춥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2도, 낮 최고기온은 1도~5도까지 올라가겠다.

휴일인 27일에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오후부터는 찬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기온이 올라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4도로 예상된다.

## 나훈아 “피소문 모두 거짓”

### 기자회견서 밝혀 “김혜수·김선아 고통 바로 잡아달라”

"여기 들어오기 전 제 속마음은 시리고 차가웠습니다. 해명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해명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각종 피소문에 휩싸였던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1)가 25일 오전 11시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간에 떠돌았던 자신에 대한 피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아쿠아 연가설' '신체훼손설' '글래머 여배우 K와의 염문설'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몇몇 언론에서 해명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나는 한 게 없기 때문에 해명할 게 없다"며 "확실치 않은 이야기를 제대로 실제에 근거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오도를 한 기사나 언론에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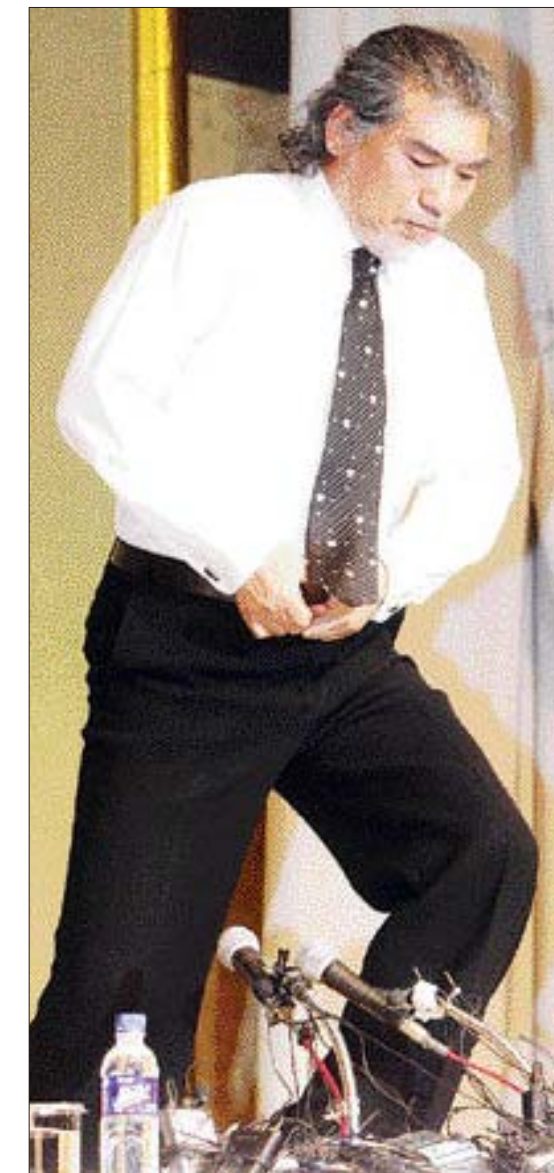
### 조목조목 반박하며 억울함 호소

나훈아는 1시간 가량 온갖 소문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 훼손설에 대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호소라도 하듯 단상에 올라 양복 상의를 벗은 채 바지 지퍼를 내리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나훈아는 각종 피소문의 원인이 됐던 지난해 세종문화회관 공연 취소에 대해 "제작진 공연 때 다음해 공연을 잡지 말라고 공연기획사 측에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연 문제를 전혀 몰랐다"면서 "그런데 공연기획사 측에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스케줄을 잡기도 어려우니 '혹시 마음 변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잡아놓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14개곡을 다니면서 스톱컷 군데 도시에 다니고 돌아와 봤더니 3류 소설이라고도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기막혔다. 아무자가 건드렸다더라"고 말하며 발끈 일어섰다.

마지막 성기를 보여주려는 듯 바지 지퍼를 반쯤 내린 그는 "내가 여러번 대표에게 직접 5분간 보여주면 믿겠느냐?"라면서 "밑에가 잘렸다고 한다. 내가 직접 보여줘야겠느냐, 아니면 내 말을 믿겠느냐?"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가수 나훈아가 25일 오전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소문의 진상을 밝히며 바지를 벗으려 하고 있다. /연필뉴스

### “바지 내려야 믿나” 돌발행동도

자신의 소문과 관련해 고통받은 여배우 김혜수와 김선아에 대해서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자들인데 꼭 이 자리를 통해 바로 잡아 달라"면서 "나는 관중지만 이들은 안 된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도 전해달라"고 강조했다.

나훈아는 모 연예인의 아내와의 불륜 소문에 대해 "남의 마누라를 탐하는 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마음이 눈곱만큼만이라도 있었다라면 (내가) 여러분의 집에 키우는 개×입니까"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며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은 엄연히 간통죄가 있는 법치 국가다. 만약 그렇다면 법적으로 벌써 문제가 됐어야 한다"고 소문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나훈아 팬클럽 회원들과 700여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려들어 세간에 돌린 관심을 증명했다.

## 광주 잇단 교통사고 4명 숨져

광주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4명이 숨졌다.

25일 새벽 2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은행과 앞 삼거리에서 광모(36)씨가 몰던 오토바이 승용차가 방호벽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밤 9시35분께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도로에서 전모(41)씨가 운전하던 SM 5 택시가 도로에 세워져 있던 전모(여·41)씨의 세피아 승용차를 추돌, 정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장 : 061) 337-0571

## ‘전방위 로비’ 김상진씨 징역 7년 구형

국세청장과 청와대 전 비서관 등이 연루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 전방위 로비사건'의 당사자 김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25일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정상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금을 세탁해 정·관계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형적인 재계발토착비리 사건"이라며 "지역경제를 한순간 경색하게 한 책임을 물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축사 탈출 암소, 행인 들이받아  
○축사를 뛰쳐나온 암소가 길을 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도주해 소 주인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채지.  
○지난 24일 오후 1시께 고령군 대서면 송모(77)씨의 축사에서 송씨가 새로 구입한 소 3마리를 축사에 넣던 중 2년생 암소 1마리가 뛰쳐나간 것.  
○이 암소는 흥분상태로 1.5km 가량을 질주한 끝에 마을회관 앞을 걷고 있던 또 다른 송모(여·78)씨를 머리 돌이받은 뒤 인근 산으로 도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가 현재 소를 찾기 위해 인근 산을 수색중.  
○송씨는 뇌출혈을 일으켜 전남 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 주인 송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  
/고흥=대성수기자 dss@

광주 전문안비뇨기과  
www.urologist.com  
발기부전수술  
성형 (062) 233-5119